

사료효율과 사료요구율

일반적으로 사료비는 양돈생산비중 매우 많은 비율(60~70%)을 차지하므로 사료효율(Feed Efficiency)을 좋게 하는 것은 곧 양돈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양돈을 경영하면서 사료효율과 사료요구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사료효율과 사료요구율을 올바르게 분간하지 않고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돼지에 있어서 사료효율은 일반적으로 사료소비량(Feed Consumption)을 증체량(Gain)으로 나누어 계산하든지, 또는 증체율을 사료소비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자의 방법에 의한 사료효율은 1kg 증체에 소요된 사료의 양(kg)을 뜻하는 것으로서 계산된 사료효율의 값이 작은 수치일수록 사료이용성이 좋은 것을 뜻한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 의한 사료효율은 소비된 사료 1kg당 얻어진 증체량을 뜻하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된 사료효율의 값이 큰 수치일수록 사료이용성이 좋은 것을 뜻한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 즉 증체량÷사료소비량의 방법에 의한 것만을「사료효율」이라 하고, 전자의 방법, 즉 사료소비량÷증체량의 방법에 의한 것은「사료요구율」이라 구별하기도 한다.

$$* \text{사료효율}(\%) = \frac{\text{증 체 량}(\text{kg})}{\text{사료소비량}(\text{kg})}$$

$$* \text{사료 요구율} = \frac{\text{사료소비량}(\text{kg})}{\text{증 체 량}(\text{kg})}$$

예를 들어 1kg을 증체하는데 사료가 2.85kg이 소비되었다면 사료요구율은 2.85가 된다. 반면, 사료 1kg으로 350g이 증체가 되었다면 사료효율은 35%가 된다.

그런데, 여러 마리 돼지의 사료효율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있어서 사료효율의 측정을 위한 사육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돼지의 개량을 위해 여러 마리 돼지의 사료효율을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돼지가 일정한 체중으로부터 일정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사료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검정소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검정돈의 사료요구율은 검정개시체중인 30kg부터 검정종료체중인 90kg까지 섭취한 총 사료량을 그 기간동안에 증체한 양으로 나눈 평균 값이다.

종종 종돈장에서 월간잡지에 광고를 내면서 일당증체량 몇 g, 사료요구율 0.00, 등지방두께 몇 cm 등으로 표시하면서 그 종돈장의 종돈이 좋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료요구율을 표시하면서 사료요구율이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의 평균값인지를 나타내지 않아 소비자인 양돈농가들이 혼동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검정소의 경우는 30~90kg까지의 평균 사료요구율을 나타내는데 반해, 미국 등은 30~104kg까지의 평균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료요구율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혼동하기 쉽다. **참고**

〈글·김동성〉